

열왕기하 23. 유다 역사상 가장 의로웠던 왕 ‘요시아’ 2. (왕하 23 장 1-37 절)

들어가기

본 장은 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의로운 왕으로 기록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자세히 소개한 후,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왕과 ‘엘리아김’ 왕에 대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은 ‘요시아’ 왕. (1-3 절)

1)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다 들은 ‘요시아’ 왕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 ①. 자신의 옷을 찢고,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 (22 장)
- ②. 신하들을 선지자(홀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함! (22 장)
- ③.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직접 언약책 (율법책)을 낭독함! (23 장 1-2 절)
- ④.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기록된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서약함! (3 절)
 - 이때 유다 백성들도 ‘요시아’ 왕의 말에 동의하고 따르겠다고 약속함!

➤ 참고로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대한 표현/명칭을 주목!

- 22 장에서는 ‘율법책’이라고 계속 표현했는데, 23 장에서는 ‘언약책’이라고 표현함!
- 곧 22 장은 책의 내용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면, 23 장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에 더 초점을 맞추어 기록했음을 볼 수 있음.

2. ‘요시아’ 왕이 행한 구체적인 종교개혁들 (4-25 절)

1) 유다 전역에 퍼져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며 우상숭배를 폐함. (4-20 절)

- ①. 예루살렘 성전안과 밖에 설치되었던 모든 우상과 기구들을 제거하며 성전을 정결케 함! (4, 6, 7, 11, 12 절)
 - 성전에 세워졌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을 불사름.
 - 그 재와 가루를 뱀엘로 가져가 버리고, 평민의 묘지에 뿌림.
 -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림. (아세라 우상을 위해 천을 짜는 처소)
- ②.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운 산당들을 다 파괴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폐함! (5, 8, 9, 10, 13, 15, 19, 20 절)
 - 특별히 예루살렘 앞 ‘멸망 산’ 우편에 세워진 산당을 무너뜨리고 불사름!
 - ‘예루살렘 앞 멸망 산’ => ‘감람 산’을 의미함!
 -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의 우상숭배를 위해 이곳에 산당을 세우고 제사를 허락함!
 - 그런데 그 산당이 최소 300 년동안 사라지지 않고 ‘요시아’ 시대까지 있었다는 것!!
- ③.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뱀엘의 모든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던 제사장들의 무덤에서 우상 숭배를 행한 제사장들의 뼈를 취하여 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버림. (16-18 절)

- 특별히 이때 ‘요시아’ 왕은 일찍이 하나님의 일을 예언한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보전하라고 명령함!
- 참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 (열왕기상 13 장 1-30 절)
 - ‘여로보암’ 왕이 벰엘에 제단을 만들고 첫 번제를 드릴 때,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찾아와 제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지는 징표를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
 - 열왕기상 13 장 2 절의 예언!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와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 이 예언을 전한 뒤 유다로 돌아오는 길에 벰엘의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 떡과 음식을 대접받고 나귀를 타고 유다로 돌아오다 하나님의 징계로 사자에 물려 죽게 됨!!
 - 이때 벰엘의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과 함께 그 선지자의 시신을 벰엘로 가져와 자신의 묘실에 묻고, 자신도 그 옆에 묻어줄 것을 유언함!
- 따라서 당시 ‘요시아’ 왕이 행한 종교개혁은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언성취의 역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됨!

2)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함! (21-23 절)

- 특별히 22 절 말씀을 주목!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
- 우선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
 - 사사 시대부터 ‘요시아’ 왕 때까지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요시아’ 왕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음! (역대하 30 장))
- 참고로 당시 유대 백성들은 유월절을 자기 집과 지방 성소에서 그저 개별적이고, 형식적인 예식과 전통으로만 지켰음.
- 그러나 ‘요시아’ 왕은 율법대로 모든 정결의식을 행하며,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유월절을 지켰음!!

3) 예루살렘과 유다 땅 전역에 펼쳐진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함! (24 절)

-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함.
 - 곧 백성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침투해 있던 우상숭배의 문화를 철저히 제거하고자 노력!!
- 그럼 이와 같은 ‘요시아’ 왕의 믿음과 행함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 25 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3. 유다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26-27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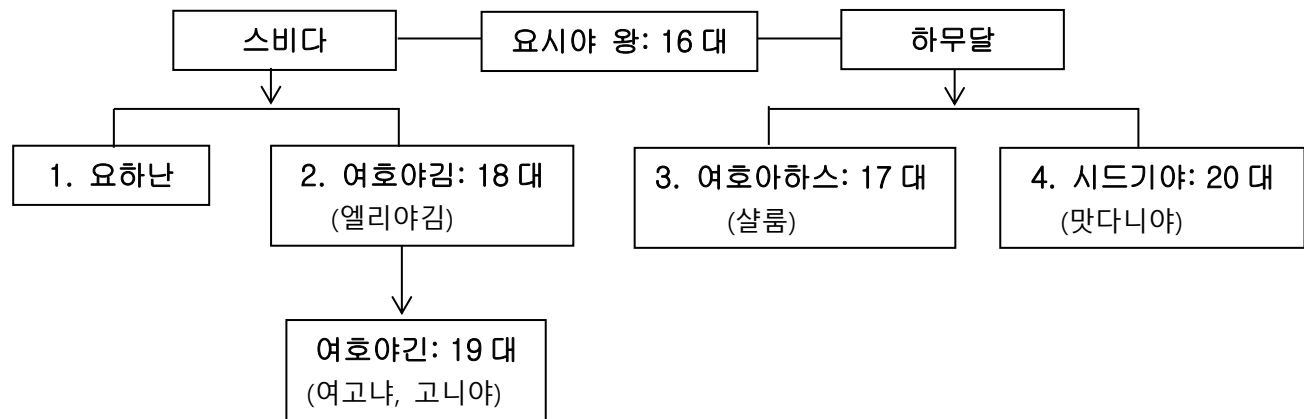
- 1) ‘요시아’ 왕의 열정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Why?
 - 우선 본문에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관점 =>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선포하신 말씀의 성취!!
 - ①. ‘므낫세’ 왕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타올랐기 때문!
 - ②.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
 - ③. 이미 북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
 - 영적인 이유/관점 => 여전히 회개치 않았기 때문!!
 - 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 (합 3 장 2 절)
 - ②.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치시는 분! (역대하 7 장 14 절)
 -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 ③.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요시아’의 명령대로 우상숭배를 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중심으로는 여전히 우상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므낫세’가 행한 범죄 가운데 머물러 살았다는 것!
 - 이 점은 ‘요시아’ 왕이 죽자 그대로 증명됨!!

4. ‘요시아’ 왕의 죽음 (28-30 절)

- 1) ‘요시아’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침입을 막다가 므깃도에서 전사하였습니다. (29 절)
 - 당시 ‘요시아’ 왕의 나이는 39 세!
 - 그는 8 세에 왕이 되었고, 16 세부터 23 년간 열심으로 개혁정치를 펼치다 전사함!
 - 이런 ‘요시아’ 왕의 삶과 죽음은 결코 불행한 죽음과 삶이 아님을 깨달자!
 -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요시아’ 왕의 최후를 22 장 20 절에서 ‘유다의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로 안치되는’ 은혜로운 죽음이라고 예언하셨음!!
 - 열정적이고 의로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다 마친 삶은 축복이요, 은혜임!!
 - 이런 ‘요시아’의 죽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 2) ‘요시아’ 왕이 죽자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30 절)

5. ‘요시아’ 왕의 뒤를 이어 유다 17 대 왕이 된 ‘여호아하스’ (31-34 절)

- 1) 참고: ‘요시아’ 왕의 아내와 아들들



2) 17 대 ‘여호아하스’ 왕의 평가는?

- ①. 그는 23 세에 왕이 되어 3 달간 유다를 통치함!
 -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 이고, 립나 ‘예레미야’의 딸!
- ②.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함!
 - 3 개월? => 곧 평소 그의 중심과 삶이 그랬다는 것!!
- ③.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왕 위에서 폐위된 후, 애굽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함!
 - 그 후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이복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움.

6. ‘여호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유다 18 대 왕이 된 ‘엘리야김(여호야김)’ (35-37 절)

1) 18 대 ‘엘리야김’ 왕의 평가는?

- ①. 25 세에 왕이 되어 11 년간 유다를 통치함!
 -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 이고, 루마 ‘브다야’의 딸.
- ②. 왕이 될 때 은과 금을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바치며 친애굽 정책을 펼침!
 - 특별히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돈을 주기 위해 백성들에게 은/금으로 세금을 징수!!
- ③.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함!